

# 식민지 조선의 못다 핀 과학기술자 ‘나경석’

## (羅景錫 1890~1959)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이 화여대의 영문학자 나영균 명예교수의 회고록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2004)을 읽다보면 그의 아버지가 기술자 나경석(羅景錫 1890~1959)임을 알게 된다. 수원에서 대단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10년 스물의 나이에 일본에 건너갔다. 조선왕조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선포된 그해의 일이다. 그는 정칙영어학교를 거쳐 1911년 도쿄고등공업학교에 입학하여 기술자로 훈련을 받았다. 아직 국내에는 대학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더구나 과학기술계 고등교육은 전혀 없었던 때에 일본의 대표적 고등공업학교에 입학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는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만하다. 20세기초 조선의 과학 기술 수준이나 그 교육 사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이 땅의 과학기술 수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후진성 때문에 나라를 잃은 조선으로서는 하루 속히 과학기술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세상은 그리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 아직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통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1910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도 조선 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이공계의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사이 일본에 유학하여 전문학교를 다닌 사람은 몇 있을 터이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다.

전북대 과학학과 김근배 교수의 연구서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2005)을 보면 1923년까지 일본의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조선 학생은 14명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청년으로 일본의 전체 대학 수학자는 62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공계 대학생이 겨우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제시기에 조선 청소년들의 진학 희망은 문과 중심이었지 이공계에 있지 않았다.

### 도쿄고등공업학교 유학 후 각종 사업 추진

1910년 일본에 간 나경석은 그 많지 않은 기술계 유학생이 되었

다. 집이 부자였던 그가 왜 문과로 진학하지 않고 기술계통으로 나갈 결심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가 처음 다닌 정칙영어학교는 이광수, 최남선, 신익희, 장덕수, 조만식, 박 렬, 조소앙 등 수많은 조선 청년들과 중국 학생들이 많았다. 1896년 이 학교를 세운 사이토(齋藤秀三郎)는 뒤에 일본의 대표적 영어사전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나경석은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기술자가 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1914년 7월 도쿄고공을 졸업한 그는 서울의 중앙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가 담당한 과목은 화학과 물리였으니, 과학 교사 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과학 교사로 차분하게 얹혀두지 않았다. 우선 그는 1913년쯤부터 도쿄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빠지기 시작했다. 1914년 10월에는 일본에 있으면서 조선인 친구를 일본의 사회주의자에게 소개시켜주어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건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일본 무정부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진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도 접촉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 한 가지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을 일본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시켜 미술 공부를 계속하게 해 준 것이다. 나혜석은 나경석의 여동생이다. 나혜석에 대해서는 전기 작품도 몇 나와 있고, 고향인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 까지 생겨나 있으니, 그의 오빠보다는 한참 더 유명해진 셈이다. 하지만 1914년 진명여고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녀를 일본 유학까지 시킨 것은 시대를 앞선 그의 오빠 나경석 덕분이었다.

1917년 2월 8일(목)의 ‘윤치호 일기’ 를 보면 나경석은 종로에 있는 기독교청년회관(YMCA)으로 윤치호를 만나러 갔고, 거기서 윤치호는 그를 도요나가(豊永) 박사에게 소개했다. 도요나가 박사가 누군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 이 일본인은 나경석에게 우선 비누와 양초 만드는 작은 일에 집중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아마 기술자로서의 나경석에게 공장 경영을 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도쿄고공을 졸업한 다음 1915년에 제약업에 실패했다는 대목도 보인다.

나경석은 1921년 2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 현지 총영사의 보고서 '기독교청년회의 활동과 나경석에 관한 건'이 남아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는 1월 27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는데, 자기 돈을 들여 러시아의 음악단을 조선에 데려가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의 조선인 유력자들을 모아 '원동수농주식회사'를 차려 농농사를 사업으로 벌여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그는 수원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중 반을 팔아 러시아에 갔던 것으로 기록돼있다.

그는 분명히 중앙학교의 화학·물리 교사로 안주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가 남다른 부자였다는 것과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도 한몫을 했다. 1923년 그가 조선물산장려회에 가담하여 활약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발행한 '산업계'에 여러 번 글을 썼는데, "조선 사람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니, 공업적 생산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한 투쟁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의 미온적인 주장은 별로 환영받지는 못했다.

그는 결국 1924년 6월 물산장려운동의 이사 자리를 사임하고 만주로 떠났다. 나경석이 만주 봉천으로 이주한 배경에는 일본에서 간토(關東)대지진 때 일어난 사회주의자 오스기의 살해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소극적으로나마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던 그는 이를 계기로 만주에서 기업가로 활동할 결심을 한 것이다. 만주에서 그는 동아일보 봉천지국장을 겸하면서 큰돈을 벌리고, 농민 20여 가구를 이주시켜 농업회사를 크게 경영했지만, 관리가 안 돼 1930년대에 이미 망하고 말았다. 그 후 '삼창고무공장'을 세워 60여명의 조선인 직공을 쓰며 '지까다비'를 생산해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지까다비'란 일제시기에 널리 사용된 고무로 바닥의 창을 하고 질긴 천으로 만든 양말 같은 신발이다.

### 식민지 시대적 환경이 기술자로서 성장 막아

1941봄 그는 서울로 이사했다. 청운동에 한옥을 사고, 황해도 해주에 과수원과 정미소를 사서 경영했다. 창씨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경석은 성을 '전' 자만 붙여 나전이라 고치고 '라덴'이라 읽기로 했다. 이 시기에 그의 가족은 춘원 이광수 일가와도 친해 함

#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나영균 지음

## 어느 가족의 삶을 통해 본 식민지 한국 지식인 사회의 풍경

물산장려운동을 이끌었던 아버지 나경석, 예술을 위해 살다간 고모 나혜석, 대학시절 영어 과외를 해주었던 춘원 이광수, 조선 최대의 사업가 김성수, 아버지와 사회주의자의 꿈을 불태웠던 박 열, 도쿄 은사였던 막마리아..... 교과서 밖으로 나온 유명인사들의 일상을 통해 식민지 한반도 엘리트들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본다.



나영균(78)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아버지 나경석과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였던 고모 나혜석의 삶을 중심으로 그 당시 지식인 사회의 모습을 그린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刊)을 펴냈다.

께 휴가를 가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던 듯하다. 해방 후 그는 자기 집을 특히 한민당 관련 정치인들의 모임에 제공하기도 했으나, 직접 정치에 관여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자들의 모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 1945년 10월 2일자 매일신보에 우리 공업은 우리 손으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나경석이 '조선전재기술자협회'를 결성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는데, 해외에서 귀국할 기술자들을 도와 해방 후의 우리 공업을 건설하자는 취지였다.

남북의 분단으로 그는 해주의 재산을 잃었고, 서울에서 하던 공장도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말년의 나경석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도 했다. 고무로 만든 타일, 수놓은 한복 치마저고리, 연결 무늬를 날염한 옥양목, 구두모양 개량 고무신, 흑인 고수머리 펴는 약 등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말하곤 했다. 1954년 봄에 고무 타일 사업은 실제로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나경석은 일제 초기에 기술자로 교육받은 조선인이 식민지 상황에서 기술자로서의 성공도, 식민지 조선의 기술발전에도 제대로 기여하기 어려웠던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